

# 17세기 『홍문록(弘文錄)』을 통한 인사 운영 실태와 그 변화 양상

---

윤혜민

건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yhm46@konkuk.ac.kr

---

- I. 머리말
  - II. 효종 대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 III. 현종 대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 IV. 숙종 초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 V. 맺음말
-

## I. 머리말

『홍문록(弘文錄)』은 홍문관(弘文館)<sup>1</sup>의 관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해 놓은 명부(名簿)이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궐내(闕內)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헌(文翰)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해야 했기에, 모두 문관(文官)으로 임명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했다.<sup>2</sup> 또, 법전(法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왕의 자문에 응하면서 언관(言官)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sup>3</sup>,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sup>4</sup> 이처럼 홍문관의 관원은 왕의 측근에서 학문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선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sup>5</sup>

먼저, 홍문관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정하여 「본관록(本館錄)」을 작성했다. 「본관록」은 대개 홍문관의 장관(長官)인 부제학(副提學)과 동벽(東壁)<sup>6</sup>의 1인 및 교리(校理)·수찬(修撰) 각 1명씩을 포함한 최소 4인 이상의 관원이 권점(圈點)에 참여했다.<sup>7</sup> 이어서 이조(史曹)에서 「본관록」을 마감(磨勘)하여<sup>8</sup>

---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2-C14).

- 1 홍문관은 1478년(성종 9) 藝文館으로부터 舊集賢殿의 직제와 기능을 이양받아 분리되면서 집현전의 後身으로서 성립되었다(최승희, 「弘文館의 成立 經緯」, 『한국사연구』 제5권(1970)).
- 2 『經國大典』, 「史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弘文館.
- 3 홍문관의 언관화에 대해서는 이재호, 「弘文館 機能의 變遷」, 『코기토』 제16권(1977); 최이돈, 「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 『진단학보』 제61권(1986a); 최승희, 「弘文館의 言官化」, 『조선시대사학보』 제18권(2001) 참조.
- 4 『弘文館志』(奎 1816) 「館規」 第4 請對 附伏閣·合辭.
- 5 『中宗實錄』 5년(1510) 11월 21일.
- 6 直提學부터 應教까지이다. 홍문관의 조직 구성은 <부록> 참조.
- 7 비록 관원이 많을지라도 장관과 동벽이 有故하면 거행할 수 없었다. 동벽이 주장하고 장관이 完定하기 때문이다(『弘文館志』(奎 1816) 「館規」 第4 會圈).
- 8 「본관록」을 이조에 移牒한 것은, 이조에서 『史曹錄』을 만든 후에야 「도당록」을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면, 삼공(三公)과 정부의 동서벽(東西壁)<sup>9</sup> 및 관각(館閣)·이조의 당상(堂上)이 도당(都堂)에 모여 이를 검토하고 첨삭한 후 「도당록(都堂錄)」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sup>10</sup> 본 논문에서는 「본관록」과 「도당록」을 구분하되, 이 둘을 함께 지칭할 경우 『홍문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

『홍문록』에 관한 연구는 그 정치적 중요성에서 기인하여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홍문록』의 유래와 제도를 소개하는 논문이 제출되었다.<sup>11</sup> 여기에서는 『홍문록』의 제도가 성종 초의 『예문록(藝文錄)』에서 발전하여 1478년(성종 9)에서 1493년(성종 24)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홍문관 관원 인사의 특수보호장치로서 기능했음을 강조했다.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1487년(성종 18) 무렵 『예문록』과 다른 성격으로 형성된 『홍문록』이 홍문관 언관화의 기틀로서 작용했으며, '제배(躋輩)'의 선택에 의한 그 인선(人選)이 공론정치(公論政治)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규명했다.<sup>12</sup> 아울러 『홍문록』의 인선이 다음 시기에 등장하는 낭관(郎官) 자천제(自薦制)의 전 단계라고 이해한 논문도 발표되었다.<sup>13</sup>

1990년대부터는 『홍문록』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다. 18세기 말~19세기 전반의 「도당록」 입록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우선 시행되었다.<sup>14</sup> 해당 연구에서는 한성(漢城) 거주 사족들이 주로 별시(別試)를 거쳐 「도당록」에 대거 들어가 당상관 승진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했으며,

---

작성할 수 있어서이다(『弘文館志』(奎 1816) 「館規」 第4 會圖).

9 동벽은 左·右贊成, 서벽은 左·右參贊이다.

10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10일.

11 최승희, 「弘文錄考」, 『대구사학』 제15·16권 제1호(1978).

12 최이돈, 앞의 논문(1986a).

13 최이돈, 「16세기 郎官權의 形成過程」, 『한국사론』 제14집(1986b).

14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형성구조」, 『조선정치사(상)1800~1863』(파주: 청년사, 1990).

이것이 당시 한성과 지방의 사회 분화를 반영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설했다. 또, 철종 연간에 「도당록」 입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 차츰 그 틀이 무너지고 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이 드러남도 지적했다. 17세기 「도당록」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이 시기 청요직의 경로를 「도당록」-전랑(銓郎)-사인(舍人)-승지(承旨)로 상정하고, 「도당록」이 청요직의 주요한 모집단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sup>15</sup> 여기에 더해 조선후기 「도당록」 입록자들의 주요 성관 분포와 당상관 진출률을 통계 낸 연구에서는 집권세력인 벌열(閥閥)이 「도당록」을 독점하여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청요직을 거쳐 당상관까지 쉽게 나아간 실상을 파악했다.<sup>16</sup>

2000년대 이후에는 숙종 대 정치세력의 동향을 『홍문록』 입록자들의 ‘당색’을 바탕으로 살펴본 논문이 주목된다. 홍문관의 인사운영 구조가 환국(換局)이라는 급격한 정국 변동에서 세력을 재생산하는 기반이 되었고, 점차 집단이 축소되며 권력이 집중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sup>17</sup> 이 밖에 홍문관의 자천제적 선발과 차차천전(次次遷轉)의 규정 및 가장 많은 문신 당하관의 관직 수와 수령을 거치지 않아도 4품 이상으로 승진이 가능한 점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청요직들 가운데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검증한 연구<sup>18</sup>와 현종 대 문과급제자의 분관(分館)에 따른 관직 경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당록」의 입록 여부가 이후 승진과 관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도 있다.<sup>19</sup>

15 남지대, 「조선후기의 ‘黨爭’과 淸要職」,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6 차장섭, 『朝鮮後期閥閥研究』(서울: 일조각, 1997).

17 입성자, 「숙종대 弘文錄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18 송용섭, 「조선 전기 청요직(淸要職)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제55권(2017).

19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2020).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흐름을 따라 『홍문록』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되,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 차이와 그 당락의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로는 『등영록(登瀛錄)』(奎 997, 奎 11496)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이 책은 「본관록」과 「도당록」을 상하 단에 구분하여 수록하면서, 권점 일자와 권점자 좌목 및 입록자 점수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 본관·연령·거주지와 과거급제 이력 등의 인적 사항은 『옥당선생안(玉堂先生案)』(奎 9780)과 『국조방목(國朝榜目)』(奎 貴 11655) 등으로 보완하려 한다.

단, 연구 대상 시기는 효종~숙종 초로 한정했다.<sup>20</sup> 당시는 『홍문록』을 통한 선발방식이 고착화되고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던 시기로, 『홍문록』 입록자의 선발에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그 원칙과 권점자들의 사의(私意) 개입 여부를 비교하며 포착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각 시대별로 「본관록」과 「도당록」에 입록된 자들의 기본적인 성분과 그 차이 및 이를 둘러싼 갈등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 당락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홍문록』 선발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 Ⅱ. 효종 대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효종 대(1649~1659) 「본관록」은 4회, 「도당록」은 5회 작성되었다. 「도당록」이 1회 더 작성된 것은, 이조 낭관(吏曹郎官)들의 실수로 인해서였다.

20 숙종 대는 老論과 少論의 갈등으로 정치적 양상이 전환되는 1694년(숙종 20) 甲戌換局 이전까지로 시기를 국한했다.

권점을 하기 위한 「도당록」 명단을 작성할 때, 그들이 병술년(丙戌年, 1646) 정시(庭試)와 무자년(戊子年, 1648) 식년시(式年試)의 방목(榜目)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sup>21</sup> 효종은 누락된 명단에 행해진 권점을 삭제하고, 명단을 다시 갖추어 권점을 행하도록 했다.<sup>22</sup> 이처럼 삭제된 1651년(효종 2) 3월 12일의 「도당록」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기에, 해당 「도당록」은 효종 대의 『홍문록』 분석에서 열외로 두고자 한다. 효종 대 시행된 『홍문록』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효종 대 『홍문록』의 시행과 입록 인원

	시행 일자	구분	입록 인원	비고
1	1650년(효종 1) 10월 9일	본관록	20명	미참도당록: 9명
	1651년(효종 2) 3월 12일	도당록	15명	삭제
	1651년(효종 2) 6월 13일	도당록	13명	별첨: 2명
2	1653년(효종 4) 10월 11일	본관록	25명	미참도당록: 8명
	1653년(효종 4) 10월 21일	도당록	19명	별첨: 2명
3	1657년(효종 8) 1월 23일	본관록	16명	미참도당록: 7명
	1657년(효종 8) 5월 3일	도당록	9명	별첨: 0명
4	1659년(효종 10) 2월 19일	본관록	13명	미참도당록: 6명
	1659년(효종 10) 윤3월 14일	도당록	8명	별첨: 1명

※ 『登瀛錄』(奎 997, 奎 11496) 참조.

효종의 재위 기간 중 『홍문록』은 약 2.5년에 한 번씩 작성되었다. 이것은 “『홍문록』의 권점을 정기적으로 3년에 한 차례씩 시행하되, 궐원(闕員)이 많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회권(會圈) 규정<sup>23</sup>에 비추어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효종 대 「본관록」의 입록자는 총 74명으로 1회에 평균적

21 『孝宗實錄』 2년(1651) 3월 12일.

22 『孝宗實錄』 2년(1651) 3월 15일.

23 『弘文館志』(奎 1816) 「館規」 第4 會圈.

으로 18.5명이 선발되었고, 「도당록」의 입록자는 총 49명으로 1회에 평균적으로 12.25명이 선발되었다.

여기에서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서 제외된 '미참도당록(未參都堂錄)'의 경우는 총 30회 발견된다.<sup>24</sup> 이로써 「본관록」에 입록된 경우 중 40.54%가 「도당록」에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선발된 인물이 5명 있다.<sup>25</sup> 반대로 「본관록」에 재입록했으나 「도당록」 단계에서 재탈락한 인물도 2명 있다.<sup>26</sup> 따라서 「본관록」에 재입록한 후 「도당록」에 선발된 경우와 재탈락한 경우를 모두 제외하면, 효종 대 「본관록」에 입록된 후 「도당록」에 입록되지 못하고 최종 탈락한 인원은 총 23명이다. 한편으로, 「본관록」에는 없었으나 「도당록」에 '별첨(別添)'된 인물이 5명 있다. 이들은 효종 대 「도당록」 입록자 중 약 10.2%를 차지한다.

「본관록」에 입록된 자들 중에 약 59.46%만이 「도당록」에 선발될 정도로 홍문관 관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 인물군을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홍문록』 선발에서 형성된 인물군은 크게 4부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본관록」과 「도당록」에 연이어 입록된 A그룹(39명),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 입록되지 못한 B그룹(23명)<sup>27</sup>,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24 『등영록』에 '미참도당록'으로 표기된 경우와 '미참도당록'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당록」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도 모두 포함했다.

25 沈世鼎·任翰伯·洪柱三·金萬鈞·趙胤錫이다. 효종 대 인신을 살피기 위해, 현종 대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선발된 鄭哲·宋奎濂과 별첨으로 선발된 李程은 제외했다.

26 李晚榮과 정석이 각각 2회씩 「도당록」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 중 정석은 현종 대 다시 「본관록」에 입록하여 「도당록」에 선발되었다.

27 B그룹에서 두 번 이상 탈락했던 사람은 탈락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통계를 냈다.

입록된 C그룹(5명), 별첨되어 「도당록」에만 입록된 D그룹(5명)이다.

4개 그룹의 선발 기준 차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홍문관 관원의 선발 조건을 적용해 검토해보겠다. 홍문관 관원은 법제적으로 과거(科擧)에 합격한 문관만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했다.<sup>28</sup> 문관을 수행할만한 문장(文章)과 경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품행을 두루 갖추어야 했던 것이다. 아울러 과거의 행적과 학문적 소양 및 가문(家門)의 입지 등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종 대 정언(正言) 소세양(蘇世讓)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문록』에 합당치 않은 자로는, 연구령(延九齡)이 폐조(廢朝)에서 예무관(預務官)으로 있었으므로 그 출신이 부정(不正)하며, 경숙(慶倣)·남세준(南世準)은 학문이 없으며, 최산두(崔山斗)는 한미(寒微)한 출신이므로 학문이 있더라도 불가하니, 명하여 개정하소서.<sup>29</sup>

이러한 홍문관 관원의 선발 요건들을 반영하여,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그룹을 분석하려 한다. 문장과 학문은 응시한 과거 시험의 종류<sup>30</sup>와 등수를 통해 확인하고, 가문의 역량은 성관(姓貫)<sup>31</sup>과 거주지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28 『成宗實錄』 18년(1487) 10월 26일.

29 『中宗實錄』 8년(1513) 4월 13일, “弘文錄不合者 延九齡廢朝時爲預務官 出身不正 慶倣南世準無學問 崔山斗起自寒微 雖有學問不可 命改之”.

30 시험의 종류는 ‘관원 선발 시험’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행해진 ‘式年試’와 비정기적으로 행해진 別試·增廣試·廷試·謁聖試·春塘臺試 등의 ‘비정기시’로 구분했다. 식년시는 講經을 위주로 하고, 비정기시는 製述을 위주로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1 성관은 ‘조선 후기 闕關 성관’으로 분류된 40개의 가문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40개의 성관은 新安東金氏·平山申氏·大丘徐氏·潘南朴氏·驪興閔氏·延安李氏·光州金氏·豐壤趙氏·坡平尹氏·淸風金氏·靑松沈氏·德水李氏·慶州李氏·豐山洪氏·全義李氏·東萊鄭氏·綾城具氏·南陽洪氏·海平尹氏·安東權氏·淸州韓氏·陽川許氏·恩津宋氏·楊州趙氏·豐川任氏·宜寧南氏·全州李氏·全州柳氏·慶州金氏·舊安東金氏·海州吳氏·杞溪俞氏·延日鄭氏·龍仁李氏·羅州林氏·牛峯李氏·韓山李氏·光州李氏·晉州柳氏·延安金氏이다. 차장섭,

이 외에 연령도 중요 변수로 파악했으며, 「본관록」과 「도당록」의 권점 점수도 해당 권점시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했다.<sup>32</sup> 이상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입록자들을 검토하면 <표2>와 같다.

표2-효종 대 『홍문록』 입록자 분석

		A그룹(39명)	B그룹(23명)	C그룹(5명)	D그룹(5명)
시험 종류	식년시	2.56%(1)	8.7%(2)	20%(1)	0%(0)
	비정기시	97.44%(38)	91.3%(21)	80%(4)	100%(5)
시험 중위 등수		13등	6등	4등	15등
성관 분포	별열	71.8%(28)	69.57%(16)	80%(4)	40%(2)
	그 외	28.2%(11)	30.43%(7)	20%(1)	60%(3)
거주 지역	한성	87.18%(34)	65.22%(15)	100%(5)	80%(4)
	그 외	0%(0)	21.74%(5)	0%(0)	20%(1)
	미상	12.82%(5)	13.04%(3)	0%(0)	0%(0)
중위 연령	본관록	39세	46세	41세	·
	도당록	39세	·	44세	38세
평균 권점	본관록	87.73점	80.49점	78.33점	·
	도당록	84.66점	·	76.67점	81.67점

※ 『登瀛錄』(奎 997, 奎 11496); 『國朝榜目』(奎貴 11655); 『玉堂先生案』(奎 978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전체적으로 식년시 비중이 적은 가운데<sup>33</sup> A그룹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기시 출신이었다.<sup>34</sup> 그런데 이 그룹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본관

앞의 책(1977), 117~118쪽 참조.

32 B그룹과 C그룹에서 「본관록」에 두 번 이상 입록된 경우에는, 처음 탈락했던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 처음 입록되었을 때의 연령과 권점 점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33 전반적으로 식년시 급제자는 지방 출신이 많았고, 비정기시 급제자는 한성 출신이 많았다(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제58호(2012); 차장섭, 앞의 책(1997), 132~133쪽).

34 식년시로 급제한 인물은 姜鎬이다. 강호는 명망이 흠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홍문록』에 입록될 때부터 物議가 있었으며, 교리에 제수되었을 때도 사간원의 체차

록」과 「도당록」을 연속해서 합격한 이들의 시험 중위 등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갑과(甲科) 1위를 차지한 이정기(李廷夔)·김수항(金壽恒)·이민적(李敏迪)과 갑과 3위를 차지한 홍위(洪歲)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등수가 낮은 편이었다.

A그룹에 벌열 외의 성관이 다수 있는데, 1652년(효종 3) 이후 활약한 남인 가문이 집단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麟坪大君)과 인척 관계에 있던 동복오씨(同福吳氏)의 오정원(吳挺垣)·오정위(吳挺緯)·오시수(吳始壽) 집안과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겸선(睦兼善)·목내선(睦來善) 형제 등이 있었다. 벌열 중에서도 다수의 입록자들을 배출한 가문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안동김씨(安東金氏)의 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이은상(李殷相)·이단상(李端相),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이민적(李敏迪)·이민서(李敏叙) 등을 들 수 있다. A그룹의 거주 지역은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성이며, 「본관록」과 「도당록」에 입록된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였다. 「도당록」에 20대에 입록된 인물이 8명이나 된다.<sup>35</sup>

이처럼 A그룹은 주로 한성에 거주하는 벌열 또는 당대에 활약한 가문의 인물들이었으며, 다른 그룹과 비교해 시험 등수와 연령이 낮은 편이었으나 「본관록」과 「도당록」의 권점 점수는 확연하게 높아 선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그룹은 시험 중위 등수가 높은 편으로, 갑과 1위에 이만영(李晩榮)·이경익(李慶億)·오해(吳翮)·박세모(朴世模), 갑과 2위에 이원정(李元禎), 갑과 3위

---

요구가 있었다(『孝宗實錄』 5년(1654) 1월 3일).

35 이단상[병과 5위]은 24세, 김수항[갑과 1위]과 이민서[을과 5위]는 25세, 南龍翼[병과 6위]과 安後說[을과 7위]은 26세, 閔維重[병과 15위]·오시수[병과 3위]·金始振[병과 4위]은 28세였다.

에 하진(河潛), 을과(乙科) 1위에 유도삼(柳道三)·성하명(成夏明)·박세성(朴世城)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A그룹과 달리 집단적인 성관이 두드러지지 않는 않으며, 거주 지역 중에 한성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는데, 각각 진주(晉州)·청주(淸州)·원주(原州)·칠원(漆原)·회덕(懷德)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B그룹의 큰 특징은 「본관록」에 처음 입록되었을 때의 중위 연령이 46세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이 B그룹은 시험 등수는 높았으나, 한성 외의 거주 지역을 둔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이 크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들이 「도당록」에 입록되지 못하고 탈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C그룹은 식년시의 갑과 1위를 차지한 임한백(任翰伯)과 비정기시에서 을과 1위를 차지한 홍주삼(洪柱三)·조윤석(趙胤錫) 등을 포함하여, 시험 등수가 비교 그룹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그룹에서 별열 외의 성관은 단 한 명인데, 당대 명망을 받으며 활약한 광산김씨(光山金氏) 출신으로,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인 김만균(金萬均)이었다. C그룹은 모두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C그룹이 B그룹보다 처음의 본관록 점수가 낮았으나, 후일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1659년(효종 10) 「도당록」에 입록된 김만균·조윤석·홍주삼은 김집(金集)의 집안 인물이거나 문인이었는데, 이들이 재입록한 시기가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의 산당(山黨)이 1658년(효종 9) 조정에 재진출한 시기 이후이기 때문이다.<sup>37</sup> 이처럼 C그룹은 시험 중위 등수가

36 B그룹에서 가장 어린 인물은 30세인 宋奎濂이었다.

37 1650년(효종 1) 김집을 중심으로 한 산당이 조정에서 대거 몰려났다가 1658년(효종 9) 조정에 재진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윤희민, 「17세기 후반 국왕의 정국운영과 戚臣의 역할: 효종·현종·숙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b), 28~29쪽 및 40~42쪽 참조.

가장 높고 입지 있는 가문의 한성 거주자들이었으나, 처음에는 권점 점수를 낮게 받아 탈락했다가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 등으로 재선발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D그룹은 모두 비정기시에 급제한 인물들이며, 시험 중위 등수가 비교 그룹 중에서 가장 낮았다.<sup>38</sup>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별열 외의 성관 비중이 높았지만, 김장생의 증손인 김만기(金萬基)와 장현광(張顯光)의 아들인 장응일(張應一)<sup>39</sup> 및 이식(李植)의 문인이자 사위인 조비(趙備)가 포함되어 있었다. D그룹은 「도당록」에 입록된 연령이 20대 또는 50대로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을 보였다.<sup>40</sup> 이와 같이 D그룹은 시험 등수가 높지 않고 연령도 평균보다 크게 적거나 많은 특징을 보였지만, 명망가의 후손이나 인척으로 「본관록」을 건너뛰고 「도당록」에 입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하자면, 효종 대에는 한성에 거주하는 별열 또는 별열이 아닐지라도 명문가의 인물들이 주로 『홍문록』에 입록되었으며, 입록자를 다수 배출한 성관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재선발된 사례들도 보인다. 입록자의 연령이 높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았지만, 명망가의 후손인 경우에는 예외도 보인다. 특히, 이들 내에서 시험 등수는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효종은 이러한 『홍문록』의 인사 운영에 대해 유감(遺憾)을 표한 적이 있다. 1653년(효종 4)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 선발되지 못한 이경역을 그 이듬해에 특별히 수찬에 제수한 것이다.<sup>41</sup> 이경역은 1644년

38 閔鼎重만 홀로 갑과 1위로 급제했다.

39 D그룹 중에서 장응일만 거주지가 한성이 아닌 星州였다.

40 민정중은 24세, 김만기는 27세, 장응일과 이수인은 모두 53세였다.

41 숙종 대 許積은 이경역이 濟州牧使의 불법한 일을 廉問하면서 조금도 숨기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효종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제수한 것이라고 전했다(『肅宗實錄』 1년(1675) 10월 11일).

(인조 22) 정사에서 장원(壯元)을 했던 인물이다. 이조에서는 이경역의 재주와 명망이 수찬에 합당하기는 하나, 『홍문록』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규(常規)와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이에 효종은 “내가 발탁한 것인데, 어찌 한두 옥당(玉堂) 관원이 사정(私情)에 따라 권점을 한 『홍문록』이라 하는 것만 못하겠는가.”<sup>42</sup>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헌부에서도 이경역이 홍문관직에 합당하기는 하나, 유래가 오래된 『홍문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효종은 이를 거부하며,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sup>43</sup> 이를 통해 효종 대 『홍문록』의 인선에 대한 왕의 불만 및 왕의 의중에 따라 홍문관 관원이 추가 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함께 포착할 수 있다.

### Ⅲ. 현종 대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현종 대(1659~1674) 「본관록」과 「도당록」은 각각 5회씩 작성되었다. 현종의 재위 기간 중 약 3.2년에 한 번씩 작성된 것으로, 효종 대보다 0.7년의 기간이 늘어나 3년에 한 차례씩 시행된다는 규정과 좀 더 근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종 대 「본관록」의 입록자는 총 87명으로 1회에 평균적으로 17명이 선발되었고, 「도당록」의 입록자는 총 67명으로 1회에 평균적으로 13명이 선발되었다. 이것은 효종 대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가 평균적으로 각각 18.5명과 12.25명이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이다. 현종 대 시행된 『홍문록』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42 『孝宗實錄』 5년(1654) 11월 24일, “予所簡拔 豈不如一二玉堂官之循私圈點 而稱爲錄者乎”.

43 이에 따라 『등영록』의 이경역 이름 아래에는 ‘미참도당록’ 외에 ‘甲午十一月二十四日特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현종 대 『홍문록』의 시행과 입록 인원

	시행 일자	구분	입록 인원	비고
1	1661년(현종 2) 11월 2일	본관록	15명	미참도당록: 7명
	1662년(현종 3) 5월 18일	도당록	10명	별첨: 2명
2	1664년(현종 5) 2월 4일	본관록	18명	미참도당록: 8명
	1664년(현종 5) 2월 11일	도당록	11명	별첨: 1명
3	1665년(현종 6) 12월 18일	본관록	15명	미참도당록: 7명
	1667년(현종 8) 8월 9일	도당록	12명	별첨: 4명
4	1669년(현종 10) 10월 9일	본관록	20명	미참도당록: 8명
	1669년(현종 10) 12월 13일	도당록	13명	별첨: 1명
5	1672년(현종 13) 6월 24일	본관록	19명	미참도당록: 2명
	1673년(현종 14) 7월 8일	도당록	21명	별첨: 4명

※ 『登瀛錄』(奎 997, 奎 11496) 참조.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서 제외된 ‘미참도당록’으로 표기된 경우는 총 32회이다. 「본관록」에 입록된 인원 중에서 37%가 「도당록」에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다. 효종 대보다 탈락률이 약 3.5% 줄어들었다. 이 중에는 「본관록」에 재입록한 후 「도당록」에 입록된 인물이 8명 있으며<sup>44</sup>, 「본관록」에 재입록했으나 「도당록」 단계에서 재탈락한 인물이 5명 있다.<sup>45</sup> 이를 바탕으로 현종 대 「본관록」에 입록된 후 「도당록」에서 탈락한 인원만을 계산하면, 총 18명이다. 「도당록」에 별첨된 인물은 12명이었는데, 이들은 현종 대 「도당록」 입록자 중 약 17.91%를 차지했다. 별첨자는 효종 대에 비해 약 7.7%나 늘어났다. 현종 대 『홍문록』 인선 과정에서 형성된 그룹도 크게 4부류로 나누어, 다음의 <표4>와 같이 분석해보았다.

44 沈梓·俞命胤·李夏·鄭載嵩·李穡·申命圭·任相元·徐文尙이다. 현종 대의 인선을 살피기 위해, 숙종 대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선발된 李沃과 金德遠은 제외했다.  
 45 李瑄·權格·李觀徵·金澄은 각각 2회씩, 李溟翼은 3회 「도당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는 효종 대에도 한 차례 탈락한 적이 있다.

표4- 현종 대 『홍문록』 입록자 분석

		A그룹(47명)	B그룹(18명)	C그룹(8명)	D그룹(12명)
시험 종류	식년시	23.4%(11)	5.56%(1)	37.5%(3)	0%(0)
	비정기시	76.6%(36)	94.44%(17)	62.5%(5)	100%(12)
시험 중위 등수		7등	12.5등	14등	11등
성관 분포	별열	65.96%(31)	72.22%(13)	100%(8)	83.33%(10)
	그 외	34.04%(16)	27.78%(5)	0%(0)	16.67%(2)
거주 지역	한성	85.11%(40)	72.22%(13)	75%(6)	100%(12)
	그 외	6.38%(3)	11.11%(2)	0%(0)	0%(0)
	미상	8.51%(4)	16.67%(3)	25%(2)	0%(0)
중위 연령	본관록	39세	45세	33세	·
	도당록	40세	·	36세	40.5세
평균 권점	본관록	87.31점	85.05점	85.57점	·
	도당록	88.11점	·	84.17점	85.95점

※ 『登瀛錄』(奎 997, 奎 11496); 『國朝榜目』(奎貴 11655); 『玉堂先生案』(奎 978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본관록」과 「도당록」에 연이어 입록된 A그룹(47명)의 식년시 비율이 효종 대에 비해 약 10배나 높아졌다.<sup>46</sup> 그리고 효종 대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 그룹의 시험 중위 등수가 현종 대에는 가장 높았다.<sup>47</sup> 별열 외의 성관 분포와 한성 외의 거주자도 효종 대에 비해 각각 약 6% 상승했다. 「본관록」과 「도당록」에 입록된 중위 연령은 효종 대와 비슷했으나 20대에 「도당록」에 입록된 자가 29세의 이유(李濡)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효종 대보다 현종 대의 『홍문록』 입록에 가문의 영향은

46 효종 대 식년시는 3회 시행되었고, 총 101명이 선발되었다. 현종 대 식년시는 5회 시행되었고, 총 173명이 선발되었다. 따라서 각각 연평균 10.1명과 11.53명으로, 선발 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47 갑과 1위에 吳斗寅·金錫靑·朴世堂·洪萬容·金萬重·閔蕃重·尹摺 7명, 갑과 2위에 李夏鎭, 갑과 3위에 呂聖齊·尹深 2명, 을과 1위에 李端夏·申畧·申厚載 3명이 있을 정도로 높은 등수를 차지한 인물들이 많았다.

줄어들고, 시험을 통한 실력의 검증이 점차 중시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 입록되지 못한 B그룹(18명)은 효종 대에 비해 시험 중위 등수가 크게 낮아졌다. 효종 대와 달리 갑과에 든 인물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을과 1위인 권격(權格)이 가장 높은 등수였다. 이에 반해 별열의 비율과 한성 거주자의 비율은 늘어났다. 중위 연령은 효종 대와 마찬가지로 전체 그룹 중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B그룹은 효종 대에 비해 가문의 영향보다 시험 등수가 낮고 연령이 특히 많은 인물들을 위주로 탈락시켰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입록된 C그룹(8명)의 식년시 비중은 늘어난 반면에, 시험 중위 등수는 3.5배로 크게 낮아졌다.<sup>48</sup> 이들은 모두 별열에 속했고, 거주지 또한 미상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성이었다. 현종 대 C그룹의 특징은 연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확연하게 어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종 대 가문보다는 시험 등수가 낮거나 나이가 아직 어린 자들을 위주로 탈락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이 낮은 자들 중에서는 약 3년의 시간이 지나 「본관록」에 재입록되어 「도당록」에 선발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현종 대 가장 주목되는 그룹은 별첨되어 「도당록」에 입록된 D그룹(12명)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기시 출신이고, 시험 중위 등수가 전체 그룹의 평균 정도였다.<sup>49</sup> 별열 외의 성관은 2명이었는데, 오시복(吳始復)과 원만리(元萬里)로 당대 정계에서 활약하던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모두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도당록」에 입록되었을 때의 중위 연령은 「본관록」을 통해 오른 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종 대 D그룹은 A그룹과

48 갑과 1위인 任相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과로 급제했다.

49 갑과 1위인 朴泰尙 외에 특출나게 시험 등수가 높은 자는 없었다.

연령이 비슷한 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한성에 거주했던 입지 있는 가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별첨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종 대에는 효종 대에 비해 가문의 배경보다 시험을 통한 실력이 입증된 인물과 평균적인 연령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종 대와 비교했을 때, 현종 대는 특정 가문들에서 입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별첨의 경우는 선발 과정에 사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662년(현종 3)에는 도당에서 별첨한 윤지미(尹趾美)<sup>50</sup>와 원만리(元萬里)<sup>51</sup>에 대해 그 인사의 부당함을 강변하는 대사성(大司成) 서필원(徐必遠)의 상소가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되었다.<sup>52</sup> 서필원은 윤지미와 원만리를 선발함에 사사로움이 개입되었으며,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일 도당에서 권점을 행하여 뽑을 때, 윤지미와 원만리는 모두 「본관록」에 참여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홀연히 「도당록」에 끼이고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도당록」에 참여될 만한 사람이 오직 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윤지미는 상신(相臣)의 누이의 아들이고 원만리는 상신의 친아들입니다. 문벌(門閥)이 비록 이와 같더라도 이른바 도당은 곧 정부(政府)의 별명이고 정부의 주석은 바로 삼공(三公)인데 「본관록」에 누락된 그 아들과 조카만 참여되었으니, 아무리 사(私)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은 감히 믿지 못하겠습니다.<sup>53</sup>

50 윤지미는 1657년(효종 8) 알성시에 병과 1위로 급제했으며, 별첨 당시 47세였다.

51 원만리는 1660년(현종 1) 증광시 병과 7위로 급제했으며, 별첨 당시 39세였다.

52 『顯宗實錄』 3년(1662) 6월 10일.

53 徐必遠, 『六谷遺稿』 卷3 辭大司成疏[第二疏], “而頃日都堂圈取之時 尹趾美元萬里等 俱以

서필원이 언급한 윤지미의 외숙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였고, 원만리의 친부(親父)는 좌의정 원두표(元斗杓)였다. 서필원은 ‘본래 범용(凡庸)하여 취할 만한 장점이 없는 윤지미’와 ‘사람됨이 거칠고 포악하여 전혀 아망(雅望)이 없는 원만리’가 상신의 질자(姪子)이거나 친자라는 이유로 「도당록」에 입록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sup>54</sup>

이에 대응하여 정태화와 원두표는 권점하는 자리에서 기필코 사정(私情)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말이 나온 것에 대해 파직을 요청했다.<sup>55</sup> 아울러 원두표는 선대 정승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고금에 통용되는 규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윤두수(尹斗壽)가 정승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윤훤(尹暄)이, 윤방(尹昉)이 정승으로 있을 때 그의 손자 윤지(尹墀)와 조카 윤순지(尹順之)가, 오윤겸(吳允謙)이 정승으로 있을 때 그의 사위 구봉서(具鳳瑞)가, 정태화가 정승으로 있을 때 그의 아우 정만화(鄭萬和)가, 본인이 정승으로 있을 때 사위 이민서가 각각 「도당록」에 참여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sup>56</sup>

『현종개수실록』의 사관(史官)은 원두표가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붓으로 지운 고(故) 상신 이준경(李浚慶)처럼 행동하지 않고, 선조(先朝)의 명상(名相)들을 널리 인용해 스스로 해명하려 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고 전한다.<sup>57</sup> 『현종실록』의 사관 역시 원두표가 전례(前例)까

---

未參本館錄之人 忽焉被錄 他人無預者 豈都堂可錄之人 止此兩人而然耶 尹趾美相臣之妹子 元萬里相臣之親子 門閥雖如此 所謂都堂 卽政府別名 政府主席 乃是三公 而見遺本館之其子 其姪 獨得預焉 雖謂之非私 臣不敢信”.

54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史官 모두 이러한 행동을 한 서필원에 대해 고집스럽고 너그럽지 못한 병통이 있으나 일을 만나면 물러서지 않고 곧게 행동하는 것으로 自任하여 士論이 중히 여겼다고 평가했다(『顯宗實錄』 3년(1662) 6월 10일;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10일).

55 『顯宗實錄』 3년(1662) 6월 10일;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12일.

56 『顯宗實錄』 3년(1662) 6월 25일.

57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25일.

지 인용하면서 스스로 변명하려 한 그 의도가 교묘하며, 그 말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고 기록했다.<sup>58</sup> 이후 원만리는 4년 뒤인 1666년(현종 7)에 잠시 부수찬에 올랐고<sup>59</sup>, 윤지미는 「도당록」에 입록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병이 들어 1663년(현종 4) 1월 세상을 떠났다.<sup>60</sup>

이 사례는 단적으로 현종 대 『홍문록』 인선에 사의가 개입되어 공정치 못했다고 비추어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가던 시기였음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인사의 부당함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 논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는 현종 대가 효종 대에 비해 가문의 배경보다 시험을 통한 실력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 앞에서의 통계 분석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종 대 「본관록」을 거쳐 「도당록」에 선발된 인사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최유지(崔攸之)·송규렴(宋奎濂)·정중휘(鄭重徽)·신후재(申厚載) 4명인데, 이들은 모두 식년시 출신이고 대체적으로 시험을 통한 능력은 확인되었다.<sup>61</sup> 이들의 선발에 논란이 생긴 것은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가문의 배경이 언급되기도 했다.

먼저, 최유지는 병자호란 때 세마(洗馬)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노모(老母)를 이유로 청(淸)으로 가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수행하지 않은 죄를 지었고, 송규렴은 호남의 방백(方伯) 시절 고을의 일을 그르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유지가 영부사(領府事) 이경석(李景奭)의 인척이고<sup>62</sup> 송규

58 『顯宗實錄』 3년(1662) 6월 25일.

59 『顯宗實錄』 7년(1666) 12월 3일.

60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司憲府持平贈副提學尹公墓碣銘.

61 1662년(현종 3) 「도당록」에 선발된 최유지는 식년시 을과 2위 출신으로 60세였고, 송규렴은 식년시 을과 4위 출신으로 33세였다. 1667년(현종 8) 「도당록」에 선발된 정중휘는 식년시 병과 6위 출신으로 37세였으며, 1669년(현종 10) 「도당록」에 선발된 신후재는 식년시 을과 1위 출신으로 34세였다.

림이 도승지(都承旨) 겸 문형(文衡)인 김수항의 매부(妹夫)이므로, 그들의 힘으로 『홍문록』에 선발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까지 받았다.<sup>63</sup>

특히, 최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서필원은 그가 사국(史局)에 추천 되었을 때도 대간이 그 죄로 논핵하여 삭직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논박이 처음에는 그와 당색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당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그와 당색이 같은 사람 중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자가 입증하여 배척하면서 그 논의가 종식되었다고 설명했다.<sup>64</sup> 이경석은 본인이 남한산성에서 그때의 일을 직접 목도했다고 하며, 당시에 근거 없는 말이 들끓어 “대가(大駕)가 성을 나가면 몽골군이 곧바로 들어온다.”고 하여 최유지가 차마 노모를 버리고 먼저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sup>65</sup>

홍명하(洪命夏)는 『홍문록』을 삭제하자고 했으며, 조복양(趙復陽)은 삭제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조복양은 “최유지가 경학(經學) 면에서 가장 우수한데, 어째서 옥당의 선발에 부적합하단 말입니까?”<sup>66</sup>라고 그의 능력을 강조했다. 정유성(鄭維城)은 최유지에 대한 서필원의 말이 터무니없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sup>67</sup> 최유지는 『홍문록』에서 삭제되지 않는 않지만, 이후부터 그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 항상 불만을 품었다고 전한다.<sup>68</sup> 송규렴은 『홍문록』으로 배척된 이후 여러 차례 제수하는 명이 있었지만, 모두 사양하고 시골 고향에 있었다.<sup>69</sup>

62 최유지의 형인 崔徵之의 처가 이경석의 누이였다(『顯宗實錄』 3년(1662) 6월 14일).

63 『顯宗實錄』 3년(1662) 5월 18일; 『顯宗實錄』 3년(1662) 6월 10일; 『顯宗實錄』 3년(1662) 6월 12일; 『顯宗實錄』 3년(1662) 6월 21일.

64 『顯宗實錄』 3년(1662) 6월 21일.

65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23일.

66 『顯宗實錄』 3년(1662) 7월 24일, “且崔攸之經學最優 何不於玉堂之選”.

67 『顯宗實錄』 3년(1662) 10월 4일.

68 『顯宗實錄』 7년(1666) 12월 20일.

69 『顯宗改修實錄』 5년(1664) 4월 6일; 『顯宗改修實錄』 11년(1670) 윤2월 28일.

이처럼 「본관록」을 거쳐 「도당록」에 선발된 인사 중에서 능력과 가문의 배경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그 행실의 판단에 있어서는 직접 살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선비다운 모습이 없는데 『홍문록』에 선발되었다고 평가된 신후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sup>70</sup>

아울러 정중휘의 사례를 보면, 기준에 잘못된 행실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유효하게 평가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정중휘는 대각(臺閣)에 있을 때 동료가 특별히 체직당하자 드러나게 회피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언(正言)으로 있던 원만리가 이를 구실 삼아 『홍문록』에서의 삭제를 요청했다.<sup>71</sup> 이에 대해 오두인(吳斗寅)은 한때 잘못된 일을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했고, 현종 또한 4년이 지난 일로 배척당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했다.<sup>72</sup> 결국, 정중휘는 그 논란으로 7년이 지난 1674년(현종 15)에서야 수찬에 제수되었다.<sup>73</sup>

요컨대, 현종 대는 효종 대에 비해 시험을 통한 실력을 중시하고자 했으며, 선발 과정에서 사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던 별첨의 경우는 그 부당성이 드러나면 공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력과 가문의 배경이 두루 갖추어져 「본관록」을 거쳐 「도당록」에 선발된 인물 중에서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문제로 그 인선의 가부가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70 신후재는 좌의정 허적의妹子였는데, 허적이 김만기 형제의 숙부인 金益勳의 서용을 청해 준 것을 계기로 김만기 형제가 신후재를 과장되게 천거했다는 말이 전하기도 했다(『顯宗實錄』 10년(1669) 12월 13일).

71 執義 민유중이 서필원을 탄핵하다가 특별히 체직되었는데, 이를 정중휘가 구원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 기준에 서필원이 원만리의 『홍문록』 입록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원만리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72 『顯宗實錄』 8년(1667) 8월 20일; 『顯宗實錄』 8년(1667) 8월 29일.

73 『顯宗改修實錄』 15년(1674) 1월 17일.

기존의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시비를 가려 행하고자 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이경석이 “도당록을 작성할 때 상피(相避)해야 한다는 규정은 옛날부터 있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세도(世道)가 이처럼 야박해졌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sup>74</sup>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 IV. 숙종 초 『홍문록』 분석과 인사 실태

숙종 초(1674~1693) 「본관록」과 「도당록」은 각각 12회씩 작성되었다. 평균적으로 약 1.58년에 한 번씩 작성된 것인데, 효종 대의 평균인 2.5년과 현종 대의 평균인 3.2년에 비하면 특히 빈번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숙종 초에 시행된 『홍문록』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숙종 초 『홍문록』의 시행과 입록 인원

	시행 일자	구분	입록 인원	비고
1	1675년(숙종 1) 5월 6일	본관록	20명	미참도당록: 16명
	1675년(숙종 1) 윤5월 11일	도당록	5명	별첨: 1명
2	1675년(숙종 1) 7월 19일	본관록	16명	미참도당록: 3명
	1675년(숙종 1) 10월 1일	도당록	17명	별첨: 4명
3	1677년(숙종 3) 2월 13일	본관록	10명	미참도당록: 0명
	1677년(숙종 3) 2월 18일	도당록	13명	별첨: 3명
4	1679년(숙종 5) 1월 10일	본관록	15명	미참도당록: 6명
	1679년(숙종 5) 5월 22일	도당록	13명	별첨: 4명
5	1680년(숙종 6) 5월 11일	본관록	11명	미참도당록: 2명
	1680년(숙종 6) 6월 12일	도당록	12명	별첨: 3명

74 『顯宗實錄』 3년(1662) 7월 6일, “都堂錄自古無相避之規 而卽今世道消薄如此 誠可歎也”.

	시행 일자	구분	입록 인원	비고
6	1681년(숙종 7) 7월 17일	본관록	10명	미참도당록: 2명
	1681년(숙종 7) 9월 21일	도당록	15명	별첨: 7명
7	1683년(숙종 9) 4월 17일	본관록	10명	미참도당록: 1명
	1683년(숙종 9) 6월 13일	도당록	11명	별첨: 2명
8	1685년(숙종 11) 8월 22일	본관록	16명	미참도당록: 4명
	1685년(숙종 11) 11월 16일	도당록	15명	별첨: 3명
9	1688년(숙종 14) 3월 19일	본관록	11명	미참도당록: 1명
	1689년(숙종 15) 1월 17일	도당록	15명	별첨: 5명
10	1689년(숙종 15) 3월 21일	본관록	13명	미참도당록: 0명
	1689년(숙종 15) 윤3월 10일	도당록	15명	별첨: 2명
11	1690년(숙종 16) 6월 15일	본관록	17명	미참도당록: 7명
	1690년(숙종 16) 6월 29일	도당록	11명	별첨: 1명
12	1692년(숙종 18) 12월 17일	본관록	16명	미참도당록: 4명
	1693년(숙종 19) 2월 09일	도당록	15명	별첨: 3명

※ 『登瀛錄』(奎 997, 奎 11496) 참조.

숙종 대 「본관록」의 입록자는 총 165명으로 1회에 평균적으로 13.75명이 선발되었고, 「도당록」의 입록자는 총 157명으로 1회에 평균적으로 13.08명이 선발되었다. 숙종 대 「본관록」의 평균 입록자 수는 효종 대의 18.5명과 현종 대의 17명보다 적은 수치였고, 「도당록」의 평균 입록자 수는 효종 대의 12.25명과 현종 대의 13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숙종 초에는 다른 시기와 달리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 수에 큰 차이가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서 제외된 ‘미참도당록’은 총 46회가 보인다.<sup>75</sup> 「본관록」에 입록된 인원 중에서 약 27.88%가 「도당록」에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인데, 이는 효종 대의 40.5%와 현종 대의 37%에

75 『등영록』에 ‘미참도당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도당록」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시켜 통계 내었다.

비해 탈락률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는 「본관록」에 재입록된 후 「도당록」에 입록된 인물이 18명 있으며<sup>76</sup>, 「본관록」에 재입록되었으나 「도당록」 단계에서 재탈락한 인물이 1명 있다.<sup>77</sup> 이를 바탕으로 숙종 초 「본관록」에 입록된 후 「도당록」에서 탈락한 인원만을 계산하면 총 26명이다. 「도당록」에 별첨된 인물은 38명이었는데, 이들은 숙종 초 「도당록」 입록자 중 약 24.2%를 차지했다. 별첨 비율은 효종 대 10.21%에서 현종 대 17.91%로 높아졌는데, 숙종 초에 추가로 6.29%가 늘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숙종 초 『홍문록』 인선 과정에서 형성된 그룹도 크게 4부류로 나누어 <표6>과 같이 분석했다.

표6- 숙종 초 『홍문록』 입록자 분석

		A그룹(101명)	B그룹(26명)	C그룹(18명)	D그룹(38명)
시험 종류	식년시	9.9%(10)	23.08%(6)	11.11%(2)	10.53%(4)
	비정기시	90.1%(91)	76.92%(20)	88.89%(16)	89.47%(34)
시험 중위 등수		11등	12등	12등	13등
성관 분포	별열	67.33%(68)	61.54%(16)	66.67%(12)	57.89%(22)
	그 외	32.67%(33)	38.46%(10)	33.33%(6)	42.11%(16)
거주 지역	한성	86.14%(87)	76.92%(20)	83.33%(15)	76.31%(29)
	그 외	7.92%(8)	15.39%(4)	5.56%(1)	13.16%(5)
	미상	5.94%(6)	7.69%(2)	11.11%(2)	10.53%(4)
중위 연령	본관록	39세	44세	39.5세	·
	도당록	39세	·	40세	38.5세
평균 관점	본관록	90.4점	80.61점	83.33점	·
	도당록	88.73점	·	87.04점	83.36점

※ 『登瀛錄』(奎 997, 奎 11496); 『國朝榜目』(奎貴 11655); 『玉堂先生案』(奎 978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76 姜汝辰·權斗紀·權璿·金瑢·金德遠·金奭·閔黯·沈壽亮·沈濡·俞夏益·尹世喜·李彦綱·李日井·李沆·李玄紀·趙宗著·崔錫恒·韓泰東이다.

77 李壽慶이 「도당록」 단계에서 3차례 탈락했다.

숙종 초 「본관록」과 「도당록」에 연이어 입록된 A그룹(101명)의 식년시 급제 비중은 현종 대의 1/2도 안 되게 크게 줄었지만, 시험 중위 등수는 현종 대와 마찬가지로 비교 그룹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A그룹의 별열과 별열 외의 성관 비중은 현종 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부의 성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종 대와 차이가 있었다.<sup>78</sup> 숙종 초 A그룹의 거주지 분포와 『홍문록』 입록의 중위 연령도 현종 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숙종 초 「본관록」에는 입록되었으나 「도당록」에 입록되지 못한 B그룹(26명)의 경우, 효종·현종 대에 비해 식년시 비율이 대폭 늘어났으며, 별열 외의 성관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sup>79</sup> B그룹의 시험 등수는 전체 그룹의 평균치였으며, A그룹과 달리 이 그룹에 집단적인 성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숙종 초 B그룹이 「본관록」에 입록되었을 때의 중위 연령은 44세로, 다른 그룹들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부분은 효종과 현종 대에도 나타났으므로, 공통적으로 B그룹의 탈락에 입록자의 고령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초 B그룹의 「본관록」 권점 점수는 A그룹과 약 10점이 차이 날 정도로 그 격차가 컸다. 따라서 숙종 초에 나이가 많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권점 점수도 특히 낮게 부여되었음을

78 별열 성관 중에서는 광주이씨의 李聃命·李漢命·李允修·李允明, 반남박씨의 朴泰萬·朴泰維·朴泰輔, 안동권씨의 權煥·權珪·權是經·權重經, 안동김씨의 金昌集·金昌協·金盛迪, 여흥민씨의 閔就道·閔昌道·閔興道·閔鎮周·閔彦良, 연안이씨의 李鳳徵·李麟徵·이옥·李浚·李后定·李后沆·李萬元·李濟民, 청송심씨의 沈檀·沈機·沈季良·沈仲良, 풍산홍씨의 洪萬朝·洪萬遂·洪重夏·洪重鉉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별열 외의 성관 중에서는 광산김씨의 金萬吉·金鎮龜·金鎮圭, 동북오씨의 吳挺昌·吳始大·吳始萬, 사천목씨의 睦昌明·睦林儒·睦林重·睦天成, 義城金氏의 金汝鍵·金聲久, 晉州姜氏의 姜銑·姜銀이 대표적이다.

79 별열 외의 성관으로는 高靈申氏의 申善溫, 密陽朴氏의 朴純·朴信圭, 壽城羅氏의 羅學川, 驪州李氏의 李東郁, 林川趙氏의 趙昌期, 全州崔氏의 崔恒齊, 昌寧成氏의 成瓘, 漆原尹氏의 尹致績, 漢陽趙氏의 趙嗣基가 있었다.

볼 수 있다.

숙종 초 「본관록」에 재입록하여 「도당록」에 입록된 C그룹(18명)은 효종·현종 대에 비해 비정기시 급제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 그룹의 시험 중위 등수는 전체 그룹의 평균치로, B그룹과 같았다. 숙종 초의 C그룹에서 주목되는 점은 벌열 외의 성관 비율이 효종·현종 대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C그룹의 「본관록」에 입록된 연령과 「도당록」에 입록된 연령이 각각 39.5세와 40세로 0.5세 차이가 나는데, 효종 대 2.4세, 현종 대 3.6세로 차이가 나던 것과 비교가 된다. 숙종 초 『홍문록』의 시행 빈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탈락했던 인물이 단기간 내에 다시 선발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0</sup>

숙종 초 「도당록」에 별첨된 D그룹(38명)에 식년시 급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크게 주목된다.<sup>81</sup> 효종 대와 현종 대는 모두 비정기시 급제자만 별첨으로 선발되었는데, 숙종 초에는 식년시 급제자들이 포함된 것이다. D그룹에는 효종·현종 대와 달리 원주·춘천(春川)·광주(光州)·예천(醴泉)·안동(安東) 등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도 5명이나 보인다.<sup>82</sup> 또, 이 그룹의 벌열 외 성관 비율은 42.11%로, 현종 대보다 약 25%가 늘어났다.<sup>83</sup> 숙종 초 D그룹의 시험 중위 등수와 중위 연령은 전체 그룹 중에서 가장 낮았지만, 평균치와

---

80 남지대는 숙종~영조 연간에 「도당록」 입록이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한국의 과정에서 제거된 인원을 보충하는 의미도 내포하지만, 그 운영 자체가 정치세력 간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남지대, 앞의 논문(1990), 156~157쪽).

81 1660년(현종 1) 을과 5위를 한 李熙는 별첨 당시 48세였고, 1673년(현종 14) 을과 5위를 한 朴泰遜은 별첨 당시 38세였다. 1681년(숙종 7) 을과 2위를 한 金宇杭은 별첨 당시 40세였고, 1687년(숙종 13) 병과 25위를 한 金世欽은 별첨 당시 44세였다.

82 원주에는 丁思愼, 춘천에는 이후, 광주에는 朴致道, 예천에는 李東標, 안동에는 김세흡이 거주했다.

83 참고로, D그룹의 벌열 성관 중에서는 반남박씨의 朴泰遜·朴泰淳, 진주류씨의 柳命堅·柳命天 등의 친족이 보이고, 벌열 외의 성관 중에서는 A그룹에 다수 포진했던 가문인 광산김씨의 金萬琛, 동북오씨의 吳尙文, 사천목씨의 睦林一 등이 보인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였다. 이처럼 숙종 초의 D그룹은 효종·현종 대와 달리 식년시 급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종 대에 비해 벌열 외의 성관과 지방에서 거주하는 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숙종 초에는 『홍문록』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본관록」에서 「도당록」에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한 비율이 효종·현종 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탈락자가 재선발되는 기간도 짧아졌는데, 이를 통해 급변했던 정치적 상황과 인원을 급히 보충해야 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숙종 초에도 현종 대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고 시험을 통한 실력 검증이 여전히 유효했지만, 일부의 가문 또는 당색에서 입록자가 다수 배출되는 경향 또한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1675년(숙종 1) 첫 번째로 행해진 『홍문록』에서 특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현종 말 갑인예송(甲寅禮訟)에서 현종의 결단으로 기년복(耆年服)이 채택되고 중직에 남인이 포진하게 되면서<sup>84</sup> 숙종 즉위 초에도 그 기조가 이어졌는데, 처음으로 시행된 『홍문록』에서 남인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5월 6일의 「본관록」에 입록된 20명 중에 16명이 탈락하고 1명이 별첨되어 윤5월 11일의 「도당록」에는 최종 5명이 선발되었는데, 모두 남인이었던 것이다.<sup>85</sup>

이에 따라 『숙종실록』의 사관들은 남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부응교 이하진(李夏鎭)이 「도당록」을 빨리 시행하여 그의 당류(黨類)를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병을 칭탁하고 주강(書講)에 들어오지 않아 홍문관 관원이 부족한 것처럼 계책을 꾸몄다는 것이다.<sup>86</sup> 참고로, 이때 이하진의

84 이에 대해서는 이영춘,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서울: 집문당, 1998), 244~273쪽; 윤혜민, 앞의 논문(2021b), 94~101쪽 참조.

85 탈락한 16명 중에 남인이 아닌 자는 윤치적·조종저·심수량 3명이었다. 최종 선발된 5명은 이옥·오정창·목창명·류명천·柳命賢이다.

86 『肅宗實錄』 1년(1675) 윤5월 6일.

사위인 목창명(睦昌明)이 「본관록」에 올라 있었고, 5일 후에 「도당록」에 선발되었다. 또 당시 별첨된 류명천(柳命天) 형제가 허적(許積)에게 가장 아부하여, 류명천이 「본관록」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도당록」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87</sup>

하지만 이렇게 「도당록」에 입록된 자들이 하나의 당색으로만 구성된 것은 이때뿐이었다. 약 5개월 후에는 탈락했던 서인의 조종저와 심수량이 「도당록」에 선발되었다. 남인이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었을 때<sup>88</sup> 그 권력다툼으로 인해 「도당록」에서 탈락했다고 여겨진 이수경(李壽慶)의 경우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윤휴(尹鑄)는 이수경이 『홍문록』에 선발되지 못한 이유로, 그가 탁남의 허적과 권대운(權大運)을 공격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89</sup> 이에 대해 허적은 윤휴가 이미 이수경에게 비방(誹謗)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관에 따르면 이수경이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자전(慈殿)을 옮길 것을 청하여 중한 비방이 있었다고 한다.<sup>90</sup> 아울러 이수경은 이미 남인이 분열되기 전인 1675년(숙종 1) 윤5월의 「도당록」에서도 탈락한 바 있으며, 시간이 지난 1679년(숙종 5) 5월의 「도당록」에서도 탈락했다. 이수경이 탈락한 3번의 「도당록」에 모두 청남의 다른 인물들은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탈락이 당색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초에 정국의 전환에 따라 당색의 비율은 달라졌을지라도, 한 당색이 독점하는 상황은 1675년(숙종 1)의 첫 번째 『홍문록』 외에는 없던 것이다.

87 『肅宗實錄』 1년(1675) 윤5월 11일.

88 남인의 분열과 청남·탁남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肅宗實錄』 1년(1675) 6월 4일 참조.

89 허적과 권대운이 자질이 부족한 閔熙를 우의정에 추천했다는 이유로, 이수경은 그들을 배척한 적이 있다(『肅宗實錄』 1년(1675) 7월 20일).

90 『肅宗實錄』 1년(1675) 10월 11일.

단, 문재(文才)가 있다고 평가된 이서우(李瑞雨)가 인조반정 이후 대북(大北) 관련자들의 임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대북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홍문록』에 입록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sup>91</sup>, 대북만은 선발이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숙종 초의 별첨은 효종·현종 대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기존에도 권점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고 여겨진 것이 별첨이었으므로 숙종 초에도 역시 이에 대한 대간의 논란이 있었다. 1677년(숙종 3)에는 유아(儒雅)가 아닌 신후명(申厚命)이 별첨된 것이 지적되었고<sup>92</sup>, 1689년(숙종 15)에는 이상(李翔)을 구원하여 공의(公議)가 버린 김우항(金宇杭)이 김수홍의 조카로서 별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sup>93</sup>

한편 숙종 초 홍문관 관원의 인선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1680년(숙종 6)의 이사명(李師命) 발탁이다.<sup>94</sup> 같은 서인이 집권하던 시기에 실력이 있어도 선발되지 못한 인사가 있었고, 이를 국왕의 주도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숙종은 「본관록」에 입록되지 못했던 이사명을 특별히 지목해 「도당록」에 선발하도록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전적(典籍) 이사명은 문학(文學)으로 발탁 임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묘당(廟堂)의 여러 신하들이 이미 특별히 천거했을 뿐만이 아니고, 전일 감제시(柑製試) 및 어제(御製) 정시(庭試)에서 연이어 장원을 했으니, 역시 글재주가 특별한

91 윤희는 이서우가 洪宇遠을 배척한 일로 벼슬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했으나, 허적이 그가 대북인 李慶桓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홍문록』을 할 만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물러섰다(『肅宗實錄』 1년(1675) 10월 11일).

92 『肅宗實錄』 3년(1677) 5월 19일.

93 『肅宗實錄』 15년(1689) 2월 12일.

94 숙종은 11월의 保社功臣 追錄에서도 이사명을 특별히 지명했다. 그 추록 과정과 논란에 대해서는 윤희민, 「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과 정치적 의미: 『保社錄勳都監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99권(2021a), 59~65쪽 참조.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사람은 경연 석상에 발탁해 두고 고문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의 「도당록」 때에는 다 같이 권점하여 재주 있는 사람이 누락되었다는 한탄이 없도록 하라.<sup>95</sup>

영의정 김수항 등이 이러한 숙종의 지휘에 대한 부당함과 뒷날의 폐단이 될 우려를 거론하자, 숙종은 그 명을 도로 거두었다. 그런데 3일 뒤에 시행된 「도당록」에 이사명이 실제 선발되지 못하자, 숙종은 애석함을 표현하고 효종 대 고사(故事)를 들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비(中批)로 특별히 그를 수찬에 제수했다.<sup>96</sup>

이처럼 숙종 초에는 현종 대에 조성된 시험을 통한 능력 있는 자의 선발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되면서도, 급변하는 정국에 『홍문록』의 시행 빈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가문에서 입록자가 다수 배출되거나 시기에 따라 입록자들의 당색 비율이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입록자들이 하나의 당색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경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권점자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될 수 있는 별첨에서는 오히려 식년시 급제자와 별첨 외의 성관 및 지방 거주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다. 또, 국왕의 개입으로 실력자가 추가 선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숙종 초 서인과 남인의 부침(浮沈) 속에서도 권점자들의 사의보다는 공적인 선발 기준을 중시하는 『홍문록』의 기본적인 인선의 방향은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다.

---

95 『肅宗實錄』 6년(1680) 6월 9일, “典籍李師命文學之可合擢用 不但廟堂諸臣業已別薦 前者柑製及昨日庭試 連次居魁 亦可見文才之特異 如此之人擢置經幄 以備顧問 今番都堂弘錄時 一體圈點 俾無遺才之嘆”.

96 『肅宗實錄』 6년(1680) 6월 22일; 『肅宗實錄』 6년(1680) 6월 24일; 『肅宗實錄』 6년(1680) 6월 25일.

## V. 맺음말

---

본 논문에서는 효종~숙종 초의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 성분과 그 차이 및 이를 둘러싼 갈등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세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도당록」에 최종 입록된 자들이 주로 별열 성관에 해당했으며, 한성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비정기시로 급제했는데, 중위 등수가 효종 대 13등, 현종 대 11등, 숙종 초에 12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 시기 「본관록」에 입록된 A그룹의 중위 연령은 모두 39세로 동일했으며, B그룹의 중위 연령은 각각 46세, 45세, 44세로 입록자의 고령이 탈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효종 대는 한성에 거주하는 별열 또는 별열이 아닐지라도 명문가의 인물이나 당대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주로 입록되었으며, 입록자를 다수 배출한 성관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효종 대 「도당록」에 최종 입록된 자들 중에 비정기시 급제자가 95.92%, 한성 거주자가 87.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도 그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효종 대 4그룹의 시험 중위 등수가 모두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들 그룹 내에서 시험 등수는 인선에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종 대는 효종 대에 비해 가문의 배경보다 시험을 통한 실력 검증을 우선시하여, 특정 가문에서 입록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당록」에 최종 입록된 자들의 식년시 비율이 효종 대보다 약 5배 늘어난 20.9%를 차지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숙종 초에는 현종 대에 이어 시험을 통한 실력 있는 자의 선발에 비중을 두면서도, 급변하는 정국에 인원을 급히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홍문록』의 시행 빈도가 높아지고 탈락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일부의 가문 또는 당색에서 입록자가 다수 배출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당록」에 최종 입록된 자들을 보면, 하나의 당색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경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 시기 중에서 별열 외의 성관 분포와 한성 외의 거주자가 가장 많은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도당록」 입록자 중에 별첨의 비율은 효종 대 10.2%, 현종 대 17.91%, 숙종 대 24.2%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별첨은 도당 권점자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효종 대 별첨에는 명망가의 후손이나 인척이 선발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현종 대 별첨에는 당대 정계에서 활약하던 집안의 사람들이 선발되어 그 부당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숙종 초 별첨에는 오히려 이전 시기와 달리 식년시 급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별열 외의 성관과 지방 거주자의 비율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홍문록』의 인선에 국왕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종 대 이경억과 숙종 대 이사명이 특별히 국왕의 명령으로 홍문관 관원에 제수된 것인데, 이러한 국왕의 개입으로 홍문관에 시험으로 검증된 실력자가 추가 선발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17세기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홍문록』을 통한 홍문관 관원의 선발은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중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 위에서, 권점자들의 사의보다는 공적인 선발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홍문관의 조직 구성

	이칭	품계	관직명	인원	知製敎	次次遷轉
兼職	·	정1품 議政	領事	1	·	·
	館閣堂上	정2품	大提學	1	·	·
		종2품	提學	1	·	·
實職	長官	정3품 堂上	副提學	1	○	·
	東壁	정3품 堂下	直提學	1	○	○
		종3품	典翰	1	○	○
		정4품	應敎	1	○	○
		종4품	副應敎	1	○	○
	西壁	정5품	校理	2	○	○
		종5품	副校理	2	○	○
		정6품	修撰	2	○	○
		종6품	副修撰	2	○	○
	南床位	정7품	博士	1	·	○
		정8품	著作	1	·	○
		정9품	正字	2	·	○

※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弘文館; 『弘文館志』(奎 1816) 「職官」 第2 差除 附率屬 참조.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成宗實錄』. 『中宗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經國大典』. 『國朝榜目』(奎貴 11655). 『登瀛錄』(奎 997, 奎 11496). 『玉堂先生案』(奎  
9780). 『弘文館志』(奎 1816).  
徐必遠, 『六谷遺稿』.  
李德壽, 『西堂私載』.

### 2. 단행본

이영춘,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서울: 집문당, 1998.  
차장섭, 『朝鮮後期閥閥研究』. 서울: 일조각, 1997.  
최이돈, 『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研究』. 서울: 일조각, 1994.

### 3. 논문

나영훈, 「조선 현종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경로와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제94권, 2020, 197~238쪽.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형성구조」. 『조선정치사(상) 1800~1863』, 파주: 청년사, 1990, 129~165쪽.  
\_\_\_\_\_, 「조선후기의 ‘黨爭’과 淸要職」.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447~466쪽.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제58호, 2012, 3~37쪽.  
송용섭, 「조선 전기 청요직(淸要職)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한국사상사학』 제55권, 2017, 1~48쪽.  
윤혜민, 「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과 정치적 의미: 『保社錄勳都監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99권, 2021a, 41~73쪽.  
\_\_\_\_\_, 「17세기 후반 국왕의 정국운영과 戚臣의 역할: 효종·현종·숙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b.  
이재호, 「弘文館 機能의 變遷」. 『코기토』 제16권, 1977, 341~359쪽.  
임성자, 「숙종대 弘文錄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승희, 「弘文館의 成立 經緯」. 『한국사연구』 제5권, 1970, 97~112쪽.
- \_\_\_\_\_, 「弘文錄考」. 『대구사학』 제15·16권 제1호, 1978, 269~288쪽.
- \_\_\_\_\_, 「弘文館의 言官化」. 『조선시대사학보』 제18권, 2001, 34~62쪽.
- 최이돈, 「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 『진단학보』 제61호, 1986a, 5~44쪽.
- \_\_\_\_\_, 「16세기 郎官權의 形成過程」. 『한국사론』 제14집, 1986b, 3~50쪽.

## 국문초록

『홍문록(弘文錄)』은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해 놓은 명부(名簿)이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문한(文翰)을 다스리고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며 언론 활동을 수행해야 했기에, 그 선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홍문관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정하여 「본관록(本館錄)」을 작성한 후 도당(都堂)에서 이를 첨삭하여 「도당록(都堂錄)」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효종~숙종 초의 「본관록」과 「도당록」의 입록자 성분과 그 차이 및 이를 둘러싼 갈등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당락의 기준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도당록」에 최종 입록된 자들이 주로 별열 성관에 해당했다는 점, 한성에 거주했다는 점, 비정기시로 급제했다는 점, 시험 중위 등수가 11~13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 시기 모두 입록자의 고령이 탈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효종 대와 현종 대의 인사 운영 차이로는 가문의 배경보다 시험을 통한 실력 검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숙종 초에는 시험을 통한 실력 있는 자의 선발을 우선시 하면서도, 급변하는 정국에 『홍문록』의 시행 빈도가 높아지고 탈락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일부의 가문 또는 당색에서 입록자가 다수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의 당색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경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별열 외의 성관과 지방 거주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홍문록』의 인선에 국왕이 개입한 사례도 보이는데, 효종 대 이경억(李慶億)과 숙종 대 이사명(李師命)이 실력으로써 특별히 제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17세기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홍문록』을 통한 홍문관 관원의 선발은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중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조 위에서, 권점자(圈點者)의 사의(私意)보다는 공적인 선발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23. 3. 20.

심사일 2023. 4. 17.

게재 확정일 2023. 5. 11.

주제어(keywords) 홍문록(弘文錄, *Hongmunrok*), 홍문관(弘文館, *Hongmun-gwan*), 청요직(淸要職, *Cheongyojik*)

## Abstract

###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and Changing Trends through the *Hongmunrok* (弘文錄) in the 17th Century

Yun, Hyemin

The *Hongmunrok* is a list of candidates selected to become officials of the Hongmun-gwan (弘文館). The process of selecting Hongmun-gwan officials was conducted with great care. First, the Hongmun-gwan selected candidates and compiled the Bon-gwanrok (本館錄). Then, the Do-dang (都堂) reviewed and revised the list to create the Do-dangrok (都堂錄), which was ultimately used to select the candidate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registra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Bon-gwanrok and Do-dangrok from the reigns of King Hyojong to King Sukjong, as well as the conflict associated with them, it is evident that the criteria and trends in the selection process varied by era.

Common features that appeared throughout the three eras were that a high proportion of Hanyang residents were selected, the high age of registrant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disqualification, and the proportion of additional Do-dangrok registrants gradually increased. Differences in personnel management during the three eras included a decreasing emphasis on family background and a greater emphasis on skills through examinations. This trend was especially pronounc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In the early years of King Sukjong's reign, just as in King Hyojong's reign, many officials from powerful clans were selected as registrants, and the proportion of registrants affiliated to certain factions chang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climate. On the one hand, registrants were not exclusively selected based on their faction affiliation, and there was a trend of selecting individuals with basic skills, such as those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ases where the king intervened in the selection process of *Hongmunrok*, such as the special exclusion of Lee Kyung-yuk (李慶億) during King Hyojong's reign and Lee Sa-myeong (李師命) during King Sukjong's reign.

The selection of Hongmun-gwan officials through the 17th century *Hongmunrok* operated under a system that applied public selection criteria, rather than the personal preferences of influential figures (圈點者), to identify talented individuals with scholarly knowledge and ability to handle high-level positions.